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침해신고 상담 1398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600-8172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 www.clean.go.kr

국민권익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ACRC

SPRING

2021. Vol 68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결으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VOLUME UP



Contents

SPRING 2021
vol. 68

표지 이야기



● 2021 <국민권익>은 '변화의 스위치를 켜다'는 주제로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며 더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발행일 2021년 4월 2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전현희
편집인 허재우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전화 044-200-7081
팩스 044-200-7911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naver.com/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더에이치(주) 031-247-5141

변화를 만드는 우리



04

권익, 삶을 말하다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역대 최고

08

국민권익 사용설명서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12

권익은 지금 1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왜 필요할까요?



16

권익은 지금 2
한센인마을 주거복지 및 환경개선 현장회의

18

권익 빅데이터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문화와 풍경



20

시간을 걷다
그곳에 가면 마을이 호텔이다 '정선 마을호텔 18번가'

24

맛있는 이야기
지극히 한국적인 공탕



26

인문학 살롱
부캐, 당신도 만들 수 있다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

30

세상을 읽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환경을 위한 아름다운 실천

34

랜선 금융강좌
착오송금의 예방과 구제절차

국민권익 이야기

36

청렴이와 권익이
주차만 했을 뿐인데, 250만원을 내라고요?!



38

그들이 사는 세상
법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청렴정책총괄과

42

ACRC News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이슈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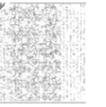
청렴한 수기
2020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기 부문 대상

48

국민 생각함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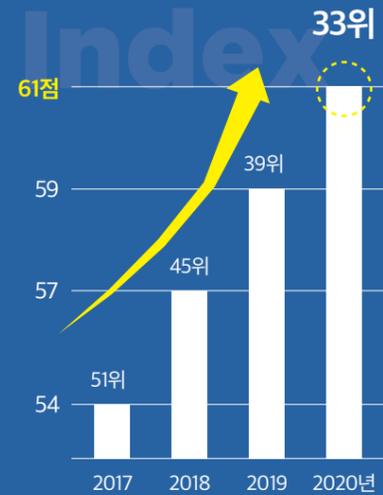
#권익
독자의 소리 / 권익위 열독왕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역대 최고

- 국제투명성기구 CPI 평가결과 61점으로 세계 33위
-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신호탄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깨끗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실시한 국가별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점을 얻으며 180개국 중 33위의 청렴국가로 평가받은 것.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더 청렴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Writer. 편집실



1

2020년 국가별
국가청렴도(CPI) 결과
발표하는
전현희 위원장

국가청렴도(CPI)는 무엇인가요?

- 발표기관 :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소재)
 - 개념 : 공공,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반부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된다. 1995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 조사대상 : 180개국(매년 변동)
 - 조사방법 :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 평가 결과를 집계
- *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2점, 6순위 상승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점수이다.

19th IACC

DESIGNING 2030:

TRUTH, TRUST & TRANSPARENCY



2

점점 더 청렴한 세상으로 다가가는 우리

반부패, 공정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적 인 이미지와 위상도 예전보다 좋아졌고, 이에 부합하는 '청렴도'가 요구되는 게 현실이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 홍콩소재 국제기업 컨설턴트 회사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는 우리나라를 아시아-태평양 16개국 중 부패인식 개선에 가장 성과가 큰 나라라고 평가했다. 특히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역할에 좋은 평가를 내렸다. 독일의 비영리 공익단체 '베텔스만재단'도 청탁금지법 등 몇 년 간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가 성과를 내고있다고 평했다. 이러한 국제평가 기관들의 평가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실시하는 '국가별 국가청렴도(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 평가에서 역대 최고점인 61점을 얻어 세계 180개국 중 33위의 청렴국가로 평가받았다.

CPI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정부신뢰도'와 함께 우리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2016년만 해도 53점으로 역대 최저 수준인 52위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후 4년 연속 상승을 거듭하며 지난해 드디어 33위, 역대 최고점에 올랐다.

이번 평가의 결과 상승 요인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보여준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이 대내외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적인 반부패 대응 체계를 잘 구축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의 성과,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의 성공

CPI 평가 결과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반부패 개혁 노력과 성과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앞으로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적 개최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현희 위원장은 "CPI 평가 결과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국가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었다"며 "이러한 결과는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반부패 개혁 노력과 성과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평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앞으로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21년에도 반부패 과제들에 정책 역량 집중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와 부패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불공정한 관행 개선 등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반부패 과제들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연내에 제정해 그간 추진한 반부패·공정개혁 입법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또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등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청렴한 사회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제고를 위한 초·중·고 교육과정 청렴교육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다음으로는 고위공직자 부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접수된 고위공직자의 관련 부패신고는 공수처 등에 고발 및 이첩하고 공수처의 내부 청렴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와 공수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권력형 부패를 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이슈가 되어 왔던 지자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실태점검과 개선대책을 마련, 지역의 구조적 부패 관행들을 끊어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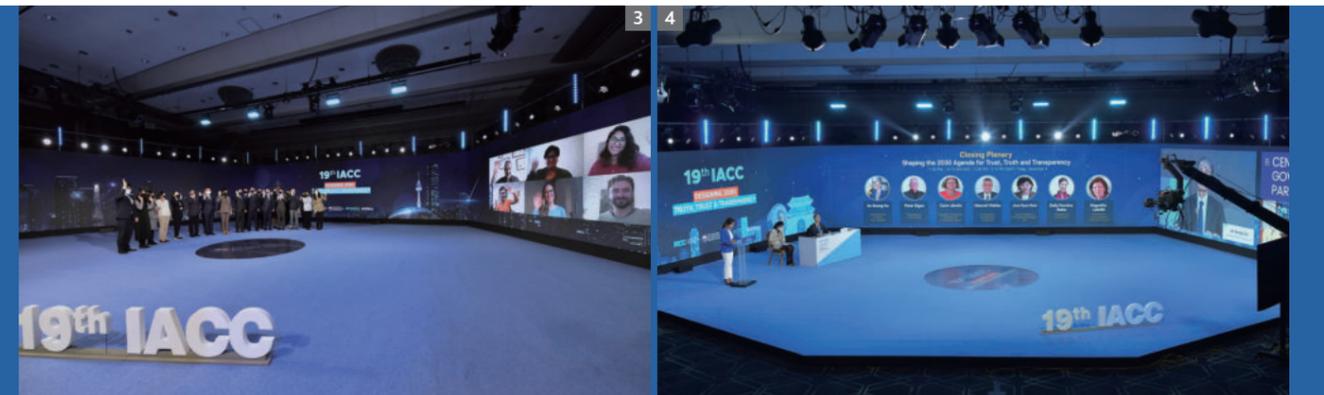
이밖에도 정부 신뢰를 저해하는 민관 유착 등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청렴 경영과 관련된 민간 분야의 중요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반부패 이슈에는 선제적

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신고자 보호의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한 선 보호 후 검토 체계를 정비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이끌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정부신뢰도 제고,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 등 반부패·공정개혁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리하여 관계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정부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 3 4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가 공동으로 진행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폐막 세션에서는 진실, 신뢰, 투명성을 위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다.



3

4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2021년에는 보다 신속하고 신뢰받는 '소통의 고리'로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앞장 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소개한다.

Writer. 편집실



+ 핵심 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

·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 제고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공정과제 발굴 및 논의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 성과 도출
부패인식지수(CPI): 2018년 45위 -> 2019년 39위 -> 2020년 33위(역대 최고순위, 4년 연속 상승)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부패 현안 적극 대응

생활적폐 개선 및 채용비리 근절, 적극행정 지원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인식이 개선(2017년 45점 -> 2019년 62점)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다'(61.7%)고 평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제도 지속 강화

보호 범위 확대(공익신고 대상법률 2018년 284개 -> 2020년 467개)
적극적 보호와 보상(보호건수 2017년 17건 -> 2018년 35건 -> 2019년 72건 -> 2020년 81건)

#1

반부패·공정개혁 완수, "청렴을 일상의 문화로 정착시키겠습니다."



1)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

- 반부패·공정개혁 완수 위해 국민권익위 정책 역량 집중
 - 2022년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 도약 목표
-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접수 시 공수처로 고발·이첩하고 공수처 내부 청렴정책 이행 지원
- 고위공직자 부패 등 권력형 부패에 대한 부패신고를 적극유도하는 집중신고기간 운영
- 부패 현안 발생 시 즉시대응체계 가동, 실태점검 및 개선안 마련
- 지방 현장에서 부패가 빈발하는 취약분야 발굴해 집중 실태점검 실시
-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2) 효과적인 부패예방을 위한 공직자 행위기준 정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조속한 제정 위해 국회 법안심사 적극 지원
-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 및 공직자의 민간 부문 청탁 금지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강화
 - 사전확인 의무화 및 비위면직자 취업심사위원회 설치 추진



3) 사회 전 부문의 청렴성 향상 대책 추진

- 반부패 정책의 범정부적 총괄·조정 강화
 - 권익위원회 조직을 부패방지 중심으로 개편하는 법률 개정안 마련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강화
 - 사전확인 의무화 및 비위면직자 취업심사위원회 설치 추진

※ 주요내용

- + (조직 개편) 조직을 부패방지 기능 중심으로 재편. 기관명칭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 변경(권익위 → 국무총리, 법제처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겸임)
- + (부패신고 사실확인 기능 보완) 신고사건의 이첩·고발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 관계기관 등에 대한 진술청취 및 의견·자료제출 요구 기능 명시
- + (반부패 민간협력 강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시 국민참여 활성화

- 청렴도 측정주기 다양화, 대상기관 재검토, 부패취약업무 신규 측정 등 객관적 지표 강화
- 기관장·고위직 반부패 노력도 평가 강화
 - 부패 현안 발생 시 대책마련과 시행 여부 가감점 반영
- 선출직 공직자 청렴리더십 및 청렴역량 향상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 청렴교육의 법적, 제도적 인프라 공고화

#2

先보호-後검토, “신고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1) 先보호-後검토로 적극적·선제적 신고자 보호 강화

-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 완화
- 잠정적 보호조치가 필요하거나 급박한 신변 보호요청 있는 경우 사전보호 전담 직원 지정
-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신분 비밀보장의무 위반 조사 시 조사 범위 확대 및 제재규정 신설
-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 공개된 경우 관련 기사 게재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2)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 신고자 구조금 지원 확대 및 부패신고 보상 확대
 - 해고 등의 원상회복 관련 쟁송뿐만 아니라 무고와 명예훼손 등 신고 관련 모든 쟁송에 대해 구조금 지급
 - 국민권익위 외에 수사 및 조사기관과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력 강화 위해 이행절차 간소화
-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향

3) 신고 활성화로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발생 차단

- 집중 신고기간 운영

분야(예시)	신고대상	시기
권력형 부패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등	상반기
정부보조금	코로나-19 지원금, 연구개발비, 지방보조금 등	3~5월
신규 공익침해행위	병역법, 대리점법, 수입식품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위반 행위	5~6월
안전 분야	건설 자격증 불법대여, 부실공사, 소방시설 미비 등	9~10월

※ 현안이나 이슈가 되는 사안 발생 시 집중신고기간을 추가하는 등 탄력적 운영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10주년 우수사례 선정 및 토론회 개최로 사회적 인식 제고



#3

코로나19 시대,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1) 신속한 고충해소로 국민에게 힘이되는 적극행정 추진

- ‘찾아가는 현장 신문고’를 연 104회로 대폭 확대(지난해 대비 33.3% UP)
- 중소기업 밀집지역 대상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운영으로 기업 맞춤형 고충해소
- 단기간에 현장 고충민원 급증 시 ‘국민고충 긴급대응반’ 운영
- 국선대리인 신청 소득기준 완화(월 평균소득 27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도 지원, 국선대리인의 수 확대(70명 -> 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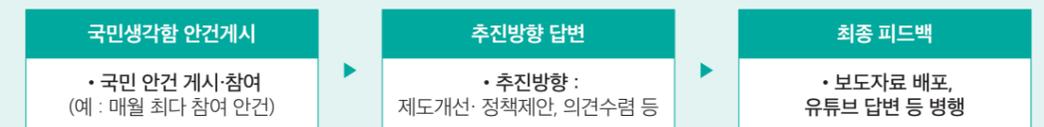
2) 사회갈등 현안 해결

- 범정부 국민고충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공공기관 및 사립대학 국민신문고 이용 단계적 확대
- 소극행정신고센터 접수 민원의 유형, 빈발분야, 발생원인, 처리실태 분석해 예방대책 수립
- 96개 정부 콜센터 시스템 통합해 빅데이터 활용 및 시자동상담(2023년까지)
- 권익위 전문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로 고충해결 사각지대 해소



3) 국민의 생각을 제도개선으로

- 사회적 갈등과 정책 현안의 주도적 해결
- 집단민원 중점 해결 및 집단민원조정법 조속 제정
- 주요 현안민원에 대해 적극 대응
 - 조정 완료 후에도 기관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언론공표 및 국무회의, 차관회의 보고 등을 통해 이행력 확보
- 국민의 참여로 체감도 높은 정책과 제도 완성
- ‘국민생각함’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 온오프라인 동시 대응을 통해 현안별로 다양한 국민 의견 균형있게 수렴
- 정책환류 강화하는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권익위가 바꿉니다’ 프로젝트 추진



- 민원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 선도
- 국민이 민원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 민원분석 플랫폼’ 구축 추진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왜 필요할까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가 획기적으로 상승해 2022년에는 세계 20위권 진입이 가능합니다.

Writer. 편집실



Q.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A.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례

-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자신의 자녀를 특별채용토록 지시하는 경우
- 인허가 업무 담당 공직자가 자신의 동생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Q.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은?

A.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기피
- 2)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신고
- 3) 직무수행 공정성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 4)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과 수익 금지
- 5)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 6)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담당자의 가족 채용 금지
- 7)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 8)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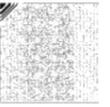
Q.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대상은?

A.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학교장 및 교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자 제재

-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 위반시 형사처벌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상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 밖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를 지나

당당한 권리를 되찾을 시간

權利

경주시 천북면 희망농원. 이곳엔 한센인들이 살고 있다. 과거 정부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41년 이상 힘든 시기를 보낸 이들. 이제 그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권익을 향상할 시간이 됐다. 이를 위해 전국 한센인마을 실태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결에서 함께한다.

Writer. 편집실

변화를 만드는 우리 — 권익은 지금 2





1. 왼쪽부터 김인권, 김종필, 윤영득, 이길용

현장조정, 그 이후의 이야기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주시 한센인촌 ‘희망농원’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와 환경개선을 위한 현장조정을 가졌다. 이 현장조정은 강제이주 정책으로 41년 이상 정부의 무관심과 인권유린 피해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아온 거주민들의 주거복지 환경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장조정을 통해 장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해온 고령의 거주민들이 그간의 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주시와 포항시, 경상북도 등과 협의해 이들의 주거복지 및 환경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이 현장조정은 ‘전국 한센인마을 실태조사’의 계기가 됐으며 많은 사람들이 한센인마을 거주민들의 복지 및 환경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지난 1월 19일에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 장관들에게 관련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으로 1월 22일 전현희 위원장 주재 한국한센총연합회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현장조정 사례를 공유하고 한센인 마을 거주민의 복지 환경 등 인권유린 피해 사례 및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자리에 함께한 이들은 한센인마을 거주민들의 권익 향상과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2. 한센연구원 전경
3. 열악한 한센인 마을 풍경



실질적인 해결 위한 간담회 진행

한센인 단체와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한센인들의 복지, 의료, 환경 등 인권 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이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해소방안들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

이길용 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은 “연합회는 1969년 10월 단체결성 후 한센인들의 복지와 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센인 마을의 슬레이트 지붕철거, 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우홍선 한국한센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센인은 질병이 완치돼도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 살고 있으며 연합회조차 잦은 사무실 이전 등 여전히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사람들의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김인권 회장은 “한센인 1세대들은 평균 79.5세의 고령”으로 장애가 있어서 요양이 가능한 복합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센병 연구와 균주 유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김종필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장은 한센인이 실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동진료와 비대면 협진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참고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희망농원 한센인들이 쏘아 올린 ‘희망의 불꽃’이 결실을 맺도록 도울 것이다.

4. 전현희 위원장 발언 모습
5. 현장조정 당시 모습



Hansen人

궁금한 이야기 Why ‘희망농원’

정부는 1961년 한센관리사업 일환으로 국립 칠곡병원 한센병 퇴원자 240명 등을 경주시 천북면 북군리 일대에 정착시켰다가 1979년 다시 보문관광지구 개발 등 국책사업을 이유로 현재 위치한 신당3리 일대인 ‘희망농원’ 지역으로 강제이주시켰다.

당시 정부는 이들의 자활을 위해 무허가로 가구당 주택 1동, 계사 1동을 신축·배정했으나, 현재 집단계사의 슬레이트(발암물질) 지붕이 낡고 부식됐고 재래식 개방형 대규모 침전조 및 하수관로가 노후화돼 악취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민원 빅데이터는 민원 현황을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각종 연구와 상품,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원동향 분석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계획한다. <2020년 민원동향>을 살펴보면,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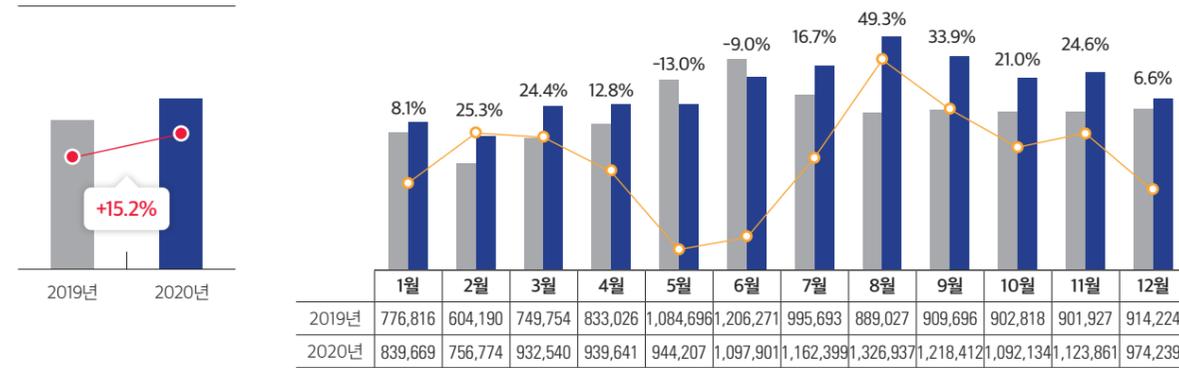
Writer. 편집실

민원 추이

- + 2020년 민원 발생량은 총 12,408,714건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
- + 월별 발생량은 5월·6월을 제외하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 8월 증가율이 가장 높음
-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울)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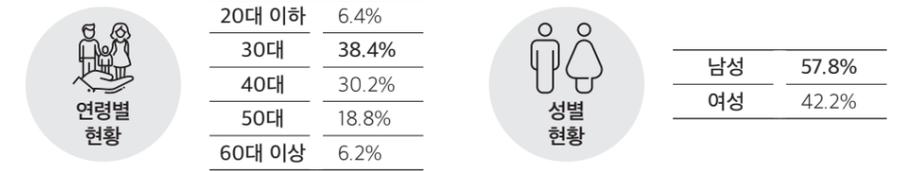
전년 대비 현황

■ 2019년 ■ 2020년 ○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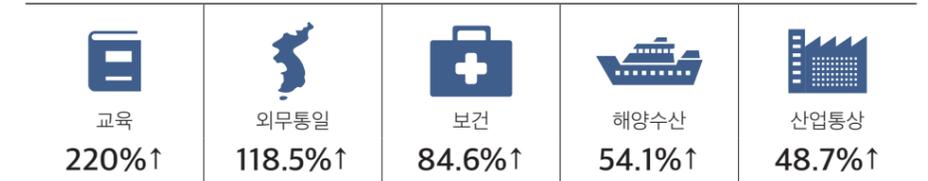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8.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30.2%, 50대 18.8% 등의 순
 + 성별로는 남성 57.8%, 여성 42.2%로 남성 신청자가 많음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3,096,870건 대상



분야별 현황

증가율 상위 분야



※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신설 요구, 코로나19 관련 입·출국 문의 등 교육 및 외무통일 분야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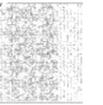
민원키워드



- + 주요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코로나19, 매교초 설립, 조합원 자격, 학습권, 재산권 침해, 토지 소유기준, 벌칙규정 강화 등의 순
- + 이동통신, 마스크, 방역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민원 키워드와 학습권,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육환경 관련 민원키워드 그리고 조합원 자격, 재산권 침해 등 부동산 관련 민원키워드가 상당수를 차지

Top 30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불법주정차	11	교통편익	21	방역
2	코로나19	12	양천구청역	22	확진자
3	매교초 설립	13	마스크	23	지원금
4	조합원 자격	14	신정차량기지	24	생활편의
5	학습권	15	설치 예정역	25	목감1중
6	재산권 침해	16	강북횡단선	2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	토지 소유기준	17	하남연장	27	위례주민
8	벌칙규정 강화	18	위례신사선	28	화재 발생
9	신곡리 주민	19	어린이보호구역	29	쓰레기소각장
10	이동통신	20	거리두기	30	M버스



그곳에 가면 마을이 호텔이다

정선 '마을호텔 18번가'

좀 더 특별한 여행을 꿈꾼다면,
마을호텔 18번가

'호캉스'는 호텔과 바캉스의 합성어로 호텔에서 즐기는 바캉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호캉스를 즐기려면 다양한 시설을 두루 갖춘 호텔을 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문을 연 '마을호텔 18번가'는 그런 점에서 투숙객들에게 더없이 좋은 곳이다. 깨끗한 객실과 카페, 맛깔스러운 음식을 선보이는 식당, 인생사진을 남길 만한 사진관, 수십 년째 한자리를 지켜온 이발소, 호텔이라면 꼭 있을 법한 비즈니스센터와 세미나실까지 완벽하다. 게다가 객실만 나서면 화사한 꽃들이 반기고 내친김에 발품을 조금만 더 팔면 천상의 정원이 펼쳐진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 그러나 상상이 아니다. 마을호텔 18번가에서는 현실이다.

마을호텔 18번가가 있는 고한읍은 고산준령이 병풍처럼 에두른 고산지대다. 사계절 가운데 겨울이 가장 긴 까닭에 3월에도 산비탈에는 만년설처럼 눈이 소복하다. 그뿐만 아니다. 마을 뒷골목만 가도 봄기운은 고사하고 언제 내려서 쌓였는지 모를 눈이 애물단지처럼 나뒹군다. 석탄 산업이 한창 호황일 때는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붐볐다. 급기야 '멍멍이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마을은 쇠락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았지만, 마을엔 갈수록 빈집이 늘어났고 인구는 줄었다. 정책만으로는 사실상 마을 환경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당연한 결과로 관광객들이 마을을 찾을 이유가 없었다.

旌善



1

여행자와 여행지의 주민들이 상생하는 공정여행. 이른바 착한 여행으로도 불리는 이 여행은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현지에서 생산한 음식을 먹는 등 지역사회를 살리는 운동이다. 공정여행을 실천하기 위해 폐광지역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을 찾았다. 그곳에서 등대처럼 환하게 빛을 밝히고 있는 '마을호텔 18번가'를 만났다.

Writer Photo. 임운석(여행작가)



2

1

마을호텔 18번가 전경

2

카페 수작은 호텔 투숙객들이 머물며 쉬기 좋은 곳이다.



3

골목풍경



4

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공방



5

석가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제332호)

어느 때부터인가 마을
분들이 경쟁하듯 꽃을
가꾸고 골목을 단장하기
시작했어요.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퍼부어도 안
바뀌었는데 말이죠

“빈집이 즐비하고 어둡고, 칙칙해서 해가 지면 사람들이 동행을 꺼렸어요. 주민들 자신도 이 동네에 사는 걸 부끄러워할 정도였죠” 편집디자이너 김진용(마을호텔 18번가 협동조합 상임이사) 씨의 말이다. 고한이 고한인 김 씨는 남들이 마을을 떠나갈 때 되려 마을에 사무실을 냈다. 그때가 2017년이었다. 김 씨는 칙칙한 사무실 앞 골목부터 청소했다. 그러자 골목이 조금씩 밝아졌다. 그러자 이장을 비롯한 몇몇 주민들도 하나둘씩 청소에 나섰다. 마을 단장은 청소를 끝내지 않았다. 직접 가꾼 꽃을 집 앞에 내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나둘씩 내놓은 꽃들을 모아 2019년부터 ‘골목길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실 강원랜드가 들어설 때만 해도 마을에서 크게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죠.” 그렇게 몇 년을 지낸 덕분일까, 청소를 시작한 마을 주민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때부터인가 마을 분들이 경쟁하듯 꽃을 가꾸고 골목을 단장하기 시작했어요.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퍼부어도 안 바뀌었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이 마을의 변화를 기적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기적이 아니다.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하고 실천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어디서도 할 수 없는 독특한 호캉스

마을 여행은 고한파출소에서 시작해 구공탄시장에서 끝난다. 불과 500m 거리다. 이 짧디짧은 구간이 마을호텔 18번가이다. 그러나 마을호텔 18번가는 고한18리 마을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인 셈이다.

호캉스에도 나름의 순서가 있는 법. 객실을 먼저 둘러본다. 입구에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꽃’이라는 글이 선명하다. 그 아래 지역 명사들이 남기고 간 응원 메시지가 여행자를 반긴다. 실내 리셉션에는 계절을 잇는 듯 화사한 꽃이 싱그럽다. 객실은 3인실 ‘꽃방’, 2인실 ‘빛방’과 ‘별방’으로 모두 3실이다. 객실을 보기 전에는 시골 민박집을 개조했으리니 생각했다. 오산이었다. 깔끔한 세팅은 물론 벽을 장식한 액자나 아기자기한 소품마저 마을주민들의 마음이 느껴진다. 시설적인 면에서나 편의성에서 일반 호텔과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마을의 스토리가 곁들여져 어디서도 만나 볼 수 없는 특별한 호텔이다. 호텔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닌 만큼 카페와 식당도 둘러봤다. 카페 ‘수작’에서는 커피와 다양 음료를 맛보며 이야기꽃을 피워도 좋다. 중식당, 한식당, 고깃집 등 식성에 따라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맛집도 포진해 있다. 특히나 골목이 호텔이니 객실만 나오면 구경하는 재미는 물론이고 가게를 기웃거리며 사람 사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

들꽃사진관은 원래 동네슈퍼였다. 그런데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빈집으로 방치 중이던 것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잠시 고향에 내려온 청년이 사진관으로 문을 열었다. 영주이발관은 16살에 머리를 감기는 것부터 이발 일을 시작했다는 59년 차 이발사가 아직도 건재하게 일을 하고 있다. 한창 잘 나갈 때는 직원만 대여섯 명이었다고 한다. 당시 사용하던 가위나 면도기는 50년이 훌쩍 넘었다. 꼼꼼하게 마을을 돌아본 까닭일까 어김없이 배꼽시계가 울어댄다. 간단히 요기할 겸 중식당으로 향한다. 국일반점 사장은 화려한 불 쇼를 선보이며 맛깔스러운 음식을 내놓는다. 짜장면에서 유난히 불 향이 강한 것은 그가 30여 년째 외길을 걸어온 데 있다.

이곳까지 행겨보면 금상첨화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만항재라는 고갯마루가 있다. 만항재는 차를 타고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고개다. 해발 1,330m에 자리한 이 고개는 남한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함백산(1,573m)의 턱밑이다. 누가 그랬다. 이 고개를 ‘하늘 아래 첫 고갯길’이라고.

고한면 끝자락에 있는 만항재는 하늘과 맞닿은 높은 지대인 데다 워낙 청정한 곳이어서 밤에는 별이 쏟아진다고 한다. 만항재의 백미는 흐드러지게 핀 야생화다. 이곳을 ‘천상화원’이라 부르는 이유다. 만항재는 ‘하늘숲 공원’과 ‘천상의 화원’ 두 곳으로 나뉜다. 두 곳 모두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니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해도 좋다. 숲속에 발을 들이면 지천으로 깔리다시피 핀 야생화가 반긴

6

마을호텔
18번가
3인실 객실
꽃방의 모습

6

7

그림에서
광부의 삶이
묻어났다.
삼탄아트마인

다. 이름도 알쏭달쏭한 난생처음 보는 꽃이지만 어느 것 하나 굵지 않은 것이 없다. 나선 김에 최근 수마노탑이 국보로 승격했다는 정암사까지 달려본다. 만항재에서 5km 남짓 거리에 있다. 정암사는 신라 선덕여왕 14년(645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국내 5대 적멸보궁 사찰이다. 적멸보궁이란 석가모니 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법당을 일컫는다. 석가의 진신사리는 수마노탑(국보 제410호)에 봉안되어 있다. 수마노탑까지 오르는 길은 가팔라 숨이 턱밑에까지 다다른다. 마을호텔 18번가에서 5km 정도 떨어진 삼탄아트마인도 챙겨볼 일이다. 이곳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유명하다. 2001년에 폐광된 옛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부지에 문화예술광산 1호로 재탄생한 곳이다. 한국인이 가봐야 할 곳 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정선의 핫플레이스로 손꼽힌다.

Tip 정선 '마을호텔 18번가'

- **혜택** : 마을호텔 18번가 투숙객은 이음플랫폼, 하늘기획 인터넷 등을 무료 사용할 수 있다. 마을 들꽃사진관, 국일반점 등 주변 상권에서 5~60%까지 할인, '삼탄아트마인'은 50% 할인한다.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36 마을호텔 18번가
- **문의** : 070-4157-8487, 정선군 종합관광안내소 1544-9053

지극히 한국적인 곰탕

우리는 오래전부터 국물 음식을 즐겨먹었다. 국과 찌개가 함께 오르는 게 우리 밥상의 기본셋(set)이다. 국과 밥을 말아 먹는 탕반 음식이 유독 발달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요리가 바로 '곰탕'이다.

Writer. 박준우 푸드 칼럼니스트

곰탕

봄의 한 풍경 가운데 놓인 곰탕

봄이 온다. 따듯한 계절이 오면 날카롭기만 했던 바람은 포근한 듯 바뀌고, 검기만 하던 나뭇가지에도 초록의 잎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얼마 전부터 해는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고, 공기에는 바다에서 묻어온 것인지, 산에서 묻은 것인지 모를 봄의 냄새가 돌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곧 만개할 빛나 무가 심어진 거리를 벌써 기대하고, 두릅이며 쑥 같은 온갖 제철 나물과 멸치나 도다리 같은 봄 생선을 찾아 나들이를 떠나기도 한다. 어쩌면 봄이 오는 속도보다 사람의 마음이 한 걸음 빠른 듯싶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봄의 한 풍경이다.

봄을 맞이하며 광화문 근처에서 뜨끈하고 맑은 곰탕을 먹었다. 모두가 봄에 잠깐 나고 사라지는 제철 재료를 뒤쫓는 시기지만, 나는 돌아온 새 계절을 지난 겨울 몸을 데우기 위해 찾았던 국물 한 그릇으로 맞이했다. 뜨거운 곰탕을 앞에 두고 날이 바뀐 것을 느끼는 재미가 작지 않다. 내게는 사회에 나와 곰탕을 처음 접하고 적잖이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우선 집에서 어른들이 '곰국'으로 부르던 음식이 밖에서는 주로 '곰탕'이라 불린다는 것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국과 탕, 찌개와 전골 등 비슷한 듯 미묘하게 다른 음식의 명칭들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곰탕이라는 이름은 너무도 낯설었다. 사전을 찾아보면 우선 국이란, 고기나 생선 등에 많은 물을 붓고 간을 하여 끓인 것이라 설명한다. 그리고 탕은 단지 국의 높임말이라 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국보다 오래 끓여 진하게 우려낸 것이라는 풀이를 덧붙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곰탕이란 곰국을 높여 부르는 단어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놀라움은 비단 이름뿐만이 아니었다. 분명 집에서 나의 증조할머니와 어머니가 끓여 상에 놓던 '곰국'은 뽕얀, 마치 우유 같이 하얀 국물이었다. 그러나 집의 울타리를 벗어나 처음 마주한 식당의 '곰탕'은 내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말갈고 거의 투명하다 싶은 국물이었다. 나중이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론적으로 분류하자면 맑은 고깃국은 대부분 곰탕으로 부르고, 뽕얇고 탁한 고깃국은 설렁탕이라고 부르는 듯했다. 국물의 색은 역시 들어가는 재료와 끓이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곰탕은 양지머리 등의 살과 내장 등을 재료로 넣어 삶기 때문에 국물이 맑고 투명하고, 설렁탕에는 이런저런 다양한 고기에 더해 사골이나 잡뼈를 넣어 끓이기 때문에 뽕얇고 탁한 국물이 나온다. 그런데 왜 나는 설렁탕이라 부르는 사골국을 곰국(또는 곰탕)으로 알고 있었던 것일까.

설은 부분하지만 맛은 분명한 곰탕

곰탕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다. 살진 살 고(膏)와 마실 음(飮)을 쓴 고음탕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여러 재료를 넣고 한참을 고았기 때문에 '고운 탕'에서 왔다는 설과 과거 몽골에서 넘어온 단어인 '공탕'에 대한 설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중 곰국과 곰탕 그리고 설렁탕의 명칭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공탕에 관한 이야기이다. 조선 영조 때에 간행한 『몽어유해(蒙語類解)』에서 맹물에 고기를 넣어 끓인 몽골의 음식을 한자로 '공탕(空湯)'이라 쓰며 몽골 발음으로 '슈루'라고 읽었다고 기록한다. 그 공탕의 한자어 독음은 우리의 곰탕으로, 몽골어 발음은 설렁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공탕이 곰탕이 되고, 설렁을 다시 설렁탕으로 고쳐 쓰면서 한국의 여러 지역과 가정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명칭과 형태가 달리 전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국과 탕의 명칭을 단지 국물 요리로서 다양한 경우에서 섞어 쓰는 습관까지 더해지면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자리하는 단어들을 마주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그렇지 않은가. 같은 곰탕(혹은 설렁탕)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누구는 깍두기를 곁들이고, 누구는 국물을 부어 먹기도 하고, 어떤 누구는 국수 마는 것을 즐기며,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싫어하기도 한다.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로 곰탕(혹은 곰국) 역시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한국 음식으로서 다양한 조리법과 명칭이 생겨난 것 아니었을까.

해는 이미 따스하지만 바람은 적당히 서늘한 이른 봄이다. 맑은 곰탕을 한 그릇 비우고 거리로 나와 몸을 펴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상큼한 봄바람이 코로 들어온다. 비록 도시의 사람과 건물 냄새가 잔뜩 묻어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천천히 음미해보면 이제 막 피어나는 잎들의 냄새, 꽃술의 냄새가 분명 배어있다. 맑은 곰탕의 은은한 고기 냄새 뒤로 느껴지는 상큼한 봄 내음은 나름 이 계절에 놓칠 수 없는 맛 중 하나다.

도시의 사람과 건물 냄새가 잔뜩 묻어있어 그것을 천천히 음미해보면 꽃술의 냄새가 분명 배어있다. 곰탕의 은은한 고기 냄새 뒤로 느껴지는 봄 내음은 나름 이 계절에 놓칠 수 없는 맛 중 하나다.



Multi — Persona

부캐, 당신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수많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집에서는 아빠, 회사에서는 과장님, 가게에서는 손님으로.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역할의 범위를 무한대로 넓혔다. 확장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은 '부캐'라 부르기 시작했다. 부캐는 상황에 따른 수동적인 변화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변화이자, 획일화된 삶에서 벗어나는 탈출구다.

Writer. 이상우 문화 칼럼니스트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부캐 열풍

연예계는 지금 '부캐'의 전성시대다. MC 유재석이 트로트 가수 유산슬로, 싹쓰리의 유두래곤으로 활약한 것이 대표적이다. 유산슬과 유두래곤은 유재석이라는 '본캐'와 물리적으로 동일 인물이지만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소비되었다. 방송연예 대상에서 유재석이 유산슬로 '신인상'을 받은 것은 부캐를 개별 주체로 인정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유재석뿐만이 아니다. <효리네 민박집>으로 제주도 라이프를 보여주던 이효리는 싹쓰리에서 '린다G'라는 설정으로 연예계에 복귀했고, 개그맨 김신영도 '돌째이모 김다비'라는 설정으로 트로트 가수가 되었다. 부캐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사실 연예인들이 다른 영역에 진출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부캐 열풍 이전에는 이른바 '멀티 플레이어'가 있었다. 예컨대 연기가 예능에도 출연하고, 가수로도 활동하는 식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소속사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부업이나 투잡에 가까웠다. 직업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했다. 연기를 잘하거나 노래를 잘 불러야 대중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

반면 최근의 부캐는 놀이에 가깝다. 본인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그것에 몰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대중들 역시 이러한 판타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소비한다. 대중들은 트로트를 부르는 유재석을 거부감 없이 유산슬로 받아들이고, 연예계의 부캐 열풍이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것은 이 현상이 '놀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래 실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약속한 규칙과 설정, 그리고 몰입이다. '부캐'라는 용어가 암시하듯이 함께 즐기는 역할놀이인 셈이다.

M u l t i P e r s o n a



누구나 부캐를 만들 수 있는 세상

게임을 즐기지 않는 세대라면 '부캐'라는 용어가 낯설지도 모르겠다. 부캐는 부캐릭터의 줄임말로 게임에서 주로 사용하는 본캐릭터(본캐) 외에 다른 목적으로 만든 보조 캐릭터를 의미한다. 메인 캐릭터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마다 가끔 접속해서 활용하는 서브 캐릭터로, 현실의 부캐는 이러한 게임 속 부캐의 의미가 일상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자신의 본래 직업이나 역할에서 벗어나 또 다른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를 '부캐'라고 부르는 것. 마치 게임처럼 이름도, 설정도, 역할도 완전히 바뀐다. 기존 캐릭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캐를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콘셉트의 부캐를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는 식이다.

앞서 소개한 연예인들은 물론,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다양한 형태의 '부캐'를 만들어 활약한다. 낮에는 직장에서 본캐로 일을 하지만, 퇴근 후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블로그 작가, 또는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부캐로 변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부캐 열풍은 과거의 '투잡'과는 다른 개념이다. 투잡이 오직 경제적 목적을 위해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것이라면 부캐는 일상에서 벗어나 취미나 여가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디지털 공간은 이러한 부캐 활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SNS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부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고양이의 일상만 올리는 계정, 와인에 대해 소개하는 계정 같은 것들이다. 게임에서 여러 개의 부캐를 만들 듯이 한 사람이 관심 사별로 여러 계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본캐가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선택한 캐릭터라면, 부캐는 자신의 취향을 즐기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캐릭터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캐의 삶보다 부캐의 삶에 더 만족감을 느낀다.

왜 부캐에 주목하는가?

김난도 교수는 현재의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멀티 페르소나'를 꼽았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의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했다. 당시에는 인물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로 가면을 사용했는데, 현대에 와서 페르소나는 '가면을 쓴 인격'이라는 뜻의 심리학 용어로 이어졌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외부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과거에는 하나의 가면을 쓰고 살아갔다면 최근에는 이 가면이 수시로 바뀐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는 회사원이지만 회사 문을 나서면 순간 스포츠 동호회원이 된다. SNS에서는 맛집 리뷰어이고, 유튜브에서는 자신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전문가가 된다. 상황에 따라 마치 가면을 바꿔 쓰듯이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멀티 페르소나가 부캐의 본질이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부캐가 주목받는 것일까? 최근의 부캐 열풍은 디지털 매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도 닿아 있다. 과거에는 개인보다 집단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개인의 행복이나 꿈은 우선순위에 밀려났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저마다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중요해졌다. 이른바 소확행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 과정에서 일 바깥에서 새로운 자아를 찾는 사람들도 늘었다. 생존과 집단주의에 억눌렸던 가면을 벗고, 나에게 어울리는 진짜 가면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 1 유재석, 비와 함께 싹쓰리라는 그룹을 만들어 전국에 싹쓰리 신드롬을 불러온 린다G 이효리
- 2 최정상 랩퍼지만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마니아층을 만들어내는 것에 성공한 마이손의 매드클라운
- 3 개그맨이자 국민MC, 예능스타 등 원톱 방송인으로 활동한 유재석은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유산슬이라는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여 전국에 이름을 알렸다.

부캐가 본캐를 뛰어넘는다

최근에는 부캐가 본캐를 넘어서는 경우도 많다.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늘면서 아예 전문 유튜버로 전향해 직장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두는 사람도 있다. 인스타그램에 취미로 올리기 시작한 작품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아예 작가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다.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다.

물론 모든 부캐들이 본캐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게임 세계에서 부캐를 만드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종족이나 외모 등을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부캐를 성장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많은 시간과 정성이 투입되어야 한다. 현실의 부캐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부캐를 키우려면 본캐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부캐를 만드는 목적은 본캐를 대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부캐는 획일화된 삶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고, 마치 놀이를 즐기듯이 본캐의 삶과 병행할 때 부캐의 가치는 극대화된다. 굳이 부캐가 본캐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결국 언젠가 우리는 본캐와 부캐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에 도달할 것이다. 내가 가장 즐거울 수 있는 영역을 찾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캐의 가치는 충분하다.



1



2



3

부캐가 주는 신선함과 해방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환경을 위한 아름다운 실천

Green Survival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면서 환경을 필수로 생각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환경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소비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많은 기관과 기업들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이제 환경은 더 이상 인류가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된 것이다. 환경이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가치가 된 시대, 환경을 위한 아름다운 실천에 대해 살펴본다.

Writer. 김수은

무분별한 소비를 벗어나 친환경 소비로

기후변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환경 문제는 전 세계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환경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친환경 소비에 앞장서고 있다. 친환경·유기농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일회용 포장이나 비닐봉지 없이 빈 용기를 지참해 장을 보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운동도 펼치고 있다.

4년 전부터 국내에 하나둘씩 생긴 제로 웨이스트 가게에는 비닐봉투도 없고 일회용 포장지도 없다. 이곳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곡물, 삼푸 등 유리병에 담긴 다양한 제품들을 저마다 가지고 온 용기에 필요한 양만큼 담는다.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고 사진을 찍어 계산대에 보여주면 가격표와 라벨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음료와 함께 제공되는 빨대를 모아 해당 기업으로 되돌려 보내는가 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소비패턴 변화는 기업들의 생산과 경영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소비자들이 환경을 위한 실천을 하더라도 생산과 공급을 하는 단계에서 규제와 관리를 하지 않으면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무분별한 소비를 벗어나 친환경 소비를 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이라면,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업들이 실천해야 할 의무이다.

트렌드는 친환경 경영

소비자들이 환경을 위한 실천을 하더라도 생산과 공급을 하는 단계에서 규제와 관리를 하지 않으면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무분별한 소비를 벗어나 친환경 소비를 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이라면,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업들이 실천해야 할 의무이다. 때문에 기업들은 친환경 경영과 다양한 아이디어로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친환경 제품개발에 나서는 한편, 환경오염을 줄이는 포장재를 사용하고 친환경 배송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힌 배달업체들은 환경을 위한 고민과 실천을 시작했다. 국내 한 배달업체는 옥수수 추출물 등 천연 소재로 만든 친환경 포장용기를 만들어 음식을 판매하는 업주들이 구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한 온라인쇼핑몰에서는 100%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한 '친환경 택배 박스'를 도입했다. 테이프를 모두 없애고 해체와 분리배출이 용이한 친환경 '테이프리스' 박스에 담아 배송해 환경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편의성도 높였다. 마시는 물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회사 홈페이지와 SNS, 앱을 통해 페트병 분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음료업계에서는 라벨을 없애고 페트를 경량화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있다.

우유와 요구르트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편의점과 연계해 빨대 없는 제품군을 선보였다. 또 플라스틱 빨대를 옥수수 소재인 '친환경 폴리락타이드(PLA)'로 교체하기도 했다.

유통업체에서는 '친환경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신선제품을 배달할 때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비닐 아이스팩 대신 종이팩에 물을 채워 얼린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한다. 불필요한 과대 포장을 줄이고 플라스틱을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는 '에코 패키지' 활용도 늘고 있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서는 소비자들이 포장재를 활용해 테이블 등 가구나 소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패션업계에서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의류를 제작하고 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죽과 모피 등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비건 패션'이 유행이다. 동물 학대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해외 명품 브랜드들은 모피 사용을 중단하는 '퍼 프리 운동'을 선언했다. 거위 털을 사용하는 아웃도어 업계도 'RDS 인증제'를 도입했다. RDS 인증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비윤리적 동물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 패션업계에서도 비건 패션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가죽은 합성피혁으로, 울과 모피는 아크릴과 폴리에스터 등 합성 소재로, 실크는 레이온과 텐셀 소재로 대체되고 있다. 또 패딩 속 충전재도 친환경 인공 충전재를 사용하고, 페트병으로 옷과 가방, 신발을 제작한다. 국내 한 의류 기업은 올해부터 친환경으로 폐기 처리하는 '탄소 제로 프로젝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폐기될 재고 의류를 폐의류 재활용 업체가 고온과 고압으로 성형해 친환경 인테리어 마감재로 만드는 것으로, 의류 생산부터 폐기까지 획기적인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은 친자연주의 화장품을 개발하고 용기도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다. 식품회사에서는 동물과 환경, 건강까지 생각하는 다양한 비건 식품을 선보이고 있다.

환경을 위한 연대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함께 연대해 환경문제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 커피 전문점과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민간 연합체 '해빗 에코 얼라이언스(ha:bit eco alliance)'를 조직해 출범했다.

해빗 에코 얼라이언스는 첫 프로젝트로 플라스틱컵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카페에서 텀블러 등 개인용기를 사용하면 '해피해빗' 앱을 통해 실적이 쌓이고 이용량에 따라 할인권이 지급된다. 이 캠페인에는 국내 점유율 1위인 스타벅스를 비롯해 달콤, 아름다운 커피, 카페오아시아 등 6곳의 커피전문점이 참여하고 있다.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환경과 연관되고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때문에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 우리의 선택이자 의무이다. 코로나19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지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될 때부터 환경은 마땅히 보호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였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실천이란 없다. 지금처럼 소비자와 기업, 기관 및 정부가 연대해 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간다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Writer.

김수은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비즈니스 매거진 월간 <BOBOO> 수석기자, 한국정경신문 산업부 기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경제 및 대중문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좀 더 많은 이가 자연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제품이 보편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금융 상식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어요!

착오송금의 예방과 구제절차

비대면 거래가 늘고 있다. 그와 더불어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내는 실수도 늘고 있다. 이용자의 실수로 송금액이나 수취인 계좌를 잘못 입력해 이체하는 경우를 '착오송금'이라고 한다. 이런 실수를 예방하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할까, 그리고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살펴보자.

Writer. 편집실

김이름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시겠습니까?



수취인 반환요청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금융꿀팁 200년 -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 2016. 9. 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착오송금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구제방안 발표, 2018. 9. 18.
예금보험공사, 보도참고자료, '20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0. 12. 9.

착오송금 했다면 송금은행에 신고부터

실수로 착오송금을 했다면 일단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를 하자. 신고를 받은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연락하고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금액 반환을 요청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은행은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돈은 수취인이 취득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수취인과 협의 없이 수취은행이 착오송금된 돈을 일방적으로 반환하거나 수취인에게 반환을 강제할 수가 없다. 만약 수취인으로부터 자발적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7월 6일부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착오송금 발생건수와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발생한 착오송금은 15.8만 건에 달한다. 이중 절반 이상인 8.2만 건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착오송금액의 회수 과정이 쉽지 않아서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에 드는 비용과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간부담으로 인해 송금인이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이런 착오송금 문제 해결이 보다 효율화될 전망이다. 2021년 7월 시행예정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면 큰 변화는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을 상대로 반환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다만 이 제도는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리고 제도 이용 시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기존 송금액에서 차감된다.



관련 판례 및 사례

- 1) 관련판례 대법원 2005다59673
- 2) 수취인 연락 두절, 임의 반환 거부, 수취계좌에 압류 등 질권이 설정되어 우선채권자가 있는 경우
- 3) 지연이체서비스 : 인터넷, 폰뱅킹으로 송금한 경우, 일정시간 이내 취소하면 이체 거래가 무효가 되는 제도. 단,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하며 특정 수취계좌에 대한 즉시이체와 같은 예외적 설정이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문의)
- 4) 관련판례 대법원 2010도891

착오송금, 예방이 최선의 방법

개정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구제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차감되기 때문에, 착오송금인은 여전히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불편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체 직전에 송금액과 계좌번호 등 수취인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이체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이체빈도가 높은 계좌는 '자주 쓰는 계좌', '즐거찾기 계좌' 등의 서비스를 활용해 수취인 정보 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자. 또 '지연이체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이 착오송금을 인지한 경우 지연시간 내 즉시 송금액 환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자.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매체를 활용한 송금 시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이체 직전에 수취인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반대로 본인이 신원 불명의 계좌로부터 금액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다면, 반드시 은행에 통지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수취인은 착오 입금된 돈을 송금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착오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는 경우에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터가 있길래...
주차만! 했을 뿐인데...
250만 원을 내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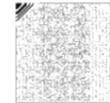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사례9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처분 행정청을 관할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공터에 주차했다가 주차비로 250만 원을 내게 된 사례를 통해 행정심판을 통한 조정 절차를 살펴본다.

Writer. 편집실



박 씨와 A 공공기관이 조정안에 동의하면서 행정심판은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속·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력하는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의 이야기 — 그들이 사는 세상

1

법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청 령 정 책 총 괄 과

반부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전략의 수립과 함께 정부 부처 간 그리고 각 부서 간 협력과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패방지국 청렴정책총괄과는 법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매년 각급 기관에 시책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의 문제점과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협력과 조정의 공간을 둔 과학적 전략을 펼치는 청렴정책총괄과를 찾아가 본다.

Writer. 박상은 Photo. 김오늘



2



3

1

청렴정책총괄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브레인이라 자부한다.

2

청렴정책총괄과는 반부패 전략과 정책의 수립, 추진 관리를 수행한다.

3

기관의 자체적 시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체계적인 지원업무도 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브레인, 청렴정책총괄과

청렴정책총괄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된 2008년부터 부패방지국의 주무과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 개편으로 과 명칭이 청렴총괄과로 변경됐다가 2020년 3월 다시 청렴정책총괄과로 변경됐다. 이는 반부패 정책의 총괄과 조정 기능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정책'이란 명칭을 다시 복원시킨 것이다. 이러한 부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청렴정책총괄과의 주된 설치 목적은 법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의 수립과 조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여 수립·조정 및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고 한다면, 청렴정책총괄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다.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민국 반부패 정책 수립과 추진의 브레인이라고 한다면, 청렴정책총괄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브레인입니다."라며 청렴정책총괄과의 정체성을 정의했다.

반부패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렴정책총괄과의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법정부 차원의 반부패 전략·정책의 수립과 추진 관리, 각급 기관의 자체적 시책 방향의 제시, 청렴도가 저조한 기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업무다.

첫 번째, 법정부 차원의 반부패 전략·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중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청렴정책총괄과에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는 2017년 9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제6차 회의까지 개최됐고, 올해 상반기 개최를 목표로 제7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분야의 반부패 과제들이 총망라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까지 각 부처에서 소관 과제를 추진

반부패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며 체계적으로 업무를 지원하는 곳, 바로 청렴정책총괄과다.



4

2021년에는 제도 개혁과 공직사회 청렴 인식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5

올해 역대 최고 국가청렴도를 기록하면서 청렴정책총괄과는 고무되어 있다.

중이다. 또한, 중대부패범죄 처벌 강화, 방위사업 비리 대책, 갑질 근절 방안, 공공분야 채용비리 대책 등을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수립·추진한다.

두 번째, 각급 공공기관 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이 자체적인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책 방향을 제시한다. 그해의 행정 환경을 반영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지침을 매년 수립하고 각급 기관에 시달한다. 올해 2월 2일과 3월 8일, 각각 중앙행정기관 감사관과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시책에 대한 설명회를 국민권익위원장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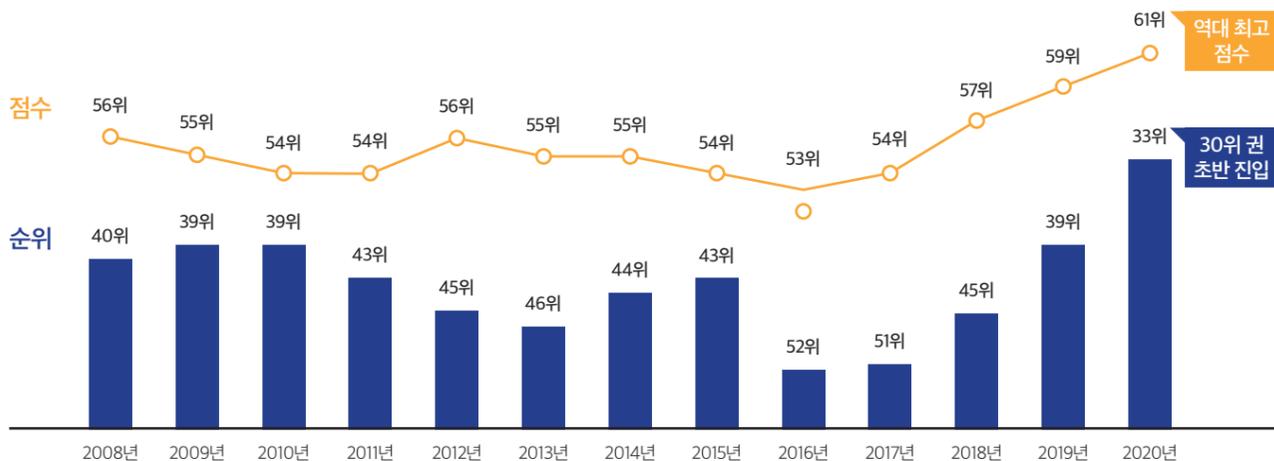
세 번째, 청렴도가 저조한 기관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각급 기관의 의무적 청렴교육지원과 함께 청렴컨설팅 정책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청렴컨설팅은 매년 각급 기관의 신청을 받아 매년 30여 개 정도의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 청렴컨설팅을 받은 기관 중 70% 정도가 그해 청렴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청렴도 180개국 중 33위, 역대 최고성적 기록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공공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가치가 더욱 대두된 한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변동 추이>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점수	56	55	54	54	56	55	55	54	53	54	57	59	61	
순위	전체	40/180	39/180	39/178	43/183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51/180	45/180	39/180	33/180
	OECD	22/30	22/30	25/33	27/34	27/34	27/34	27/34	28/34	29/35	29/35	30/36	27/36	23/37



해였으며,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반부패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반부패 정책 방향을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 기강을 재점검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의 결과, 올해 초에 발표된 국가청렴도에서 우리나라는 180개 평가 대상국 중 33위, 100점 만점에 61점이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청렴정책총괄과는 제도 개혁과 공직사회의 청렴 인식개선, 이 2가지에 부서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18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시 목표로 한 20위권 청렴선진국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2015년 청탁금지법 제정 시 누

락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입법을 올해 완료하는 등,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추진을 완성해 반부패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목표로 두고 있다. 또한, 국민의 윤리적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반부패 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청렴선진국 달성은 공직사회의 솔선수범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곳곳에 청렴과 공정의 물결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ini Interview

오직 '청렴'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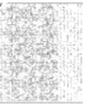
2018년 7월부터 청렴정책총괄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부패방지국 총괄업무와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범정부적인 반부패를 위해 부처가 협력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의 추진 현황을 확인합니다. 저는 청렴을 바라보는 시각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는 우리와 후대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인데 청렴과 반부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국민이 바라는 역할을 하는 잘하고 있는지, 또한 제가 맡은 바 업무를 잘 담당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겠습니다.

조유지 서기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2020년 10월부터 청렴정책총괄과에서 청렴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데, 그중 단계가 낮은 기관들에게 청렴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싶지 않은 기관은 없으나 그 방법을 잘 몰라 평가가 낮게 나오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을 청렴도 평가가 높은 기관과의 매칭해 청렴 정책과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국민의 기대가 높아졌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 정책을 잘 추진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데 저 또한 일조하고 싶습니다.

김일문 행정사무관



1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중개보수 비용 부담 완화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제안 정책방안

1안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2안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 주택 거래 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3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4안	매매와 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

i 자세히 알아보기
제도개선총괄과 044-200-7215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 크게 증가했다.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방문·협의,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온라인 토론회 등 국민권익위가 가지고 있는 제도개선의 모든 툴을 활용하여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최근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되 공인중개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4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기관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등을 발표했다. 평가 결과,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펼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기관일수록,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현황에서는 전체 263개 기관 중, 1등급 기관이 29개, 2등급 기관이 75개로 전체 39.5%(104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고,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64개 기관으로 법무부, 대구광역시, 대전시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1점으로, 시도교육청(89.7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중앙행정기관(86.5점), 공직유관단체(86.1점), 광역지자체(84.5점) 순으로 나타났다.

과제별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기관장·고위직의 청렴교육 실적이 늘어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점검이 확대되는 등 '부패방지 제도 운영' 실적이 향상된 반면,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등 '반부패 정책 성과'는 공공기관의 관심이 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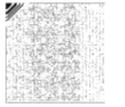
i 자세히 알아보기
청렴조사평가과 044-200-7633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심판'에 대한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양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가 위법, 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사건 사업은 자연공원 식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점, 국립공원계획변경 시 이미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전략영향평가 검토기준에 해당하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 부적절하다는 전제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점, 동물상·식물상 등에 대하여 추가로 보완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

i 자세히 알아보기
환경문화심판과 044-200-7883



4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진동 피해현장 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포항 수성사격장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 현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수성리 등 인근 마을과 민가에 피해확인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포항 수성사격장은 1965년 해병대 전용사격장으로 건설된 이후 약 55년 간 헬기, 포병, 전차 등 각종 사격훈련을 했다. 포천에서 실시했던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민원으로 인해 할 수 없게 되자 국방부는 2019년부터 포항 수성사격장을 대체 사격장으로 제공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했다.

조정 착수를 위한 관계기관 준비회의에서 주민대표와 국방부 그리고 해병대는 국민권익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 준비회의에서 국방부와 해병대는 국민권익위가 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계획된 사격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본격적으로 수성사격장 관련 소음·진동, 수질 오염 등 주민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착수해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포항시 장기면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과 국방부, 해병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현장 및 사실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주민대표와 국방부, 해병대에 협조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i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고충긴급대응반 044-200-7473

5

“코로나 극복에 공무원이 앞장서자” 국민권익위원회 제안으로 시작된 성금 모금



공직사회가 지난 설에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으로 어려운 이웃들에 작은 나눔을 실천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안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솔선수범에 나서며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됐다. 47개 중앙부처를 포함한 128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17억 원 이상의 성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5개 단체, 농어민·중소상공인 5개 단체 등 민간협회·단체들도 취지에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농축수산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됐으며, 이 선물들은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취약계층은 물론 일선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전달되었다.

i 자세히 알아보기

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0-7108

6

‘2022 국가청렴도 20위권’을 향한 대도약의 시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도(CPI)의 지속적 향상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공정 개혁 노력을 강화하고자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61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으며, 국가 순위는 33위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가 매년 측정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도 4년 연속 상승했으며, 국민들의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4년 연속 감소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2022년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을 담아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행위기준과 공직윤리의 엄정한 확립, 신속한 부패현안 대응과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를 강조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부패·공정 개혁의 완성, 모든 부패 현안에 신속 대응, 청렴의식 강화에 역량 집중, 적극적·선제적 신고자 보호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과제별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기관장·고위직의 청렴교육 실적이 늘어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점검이 확대되는 등 ‘부패방지 제도 운영’ 실적이 향상된 반면,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등 ‘반부패 정책 성과’는 공공기관의 관심이 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i 자세히 알아보기

청렴정책총괄과 044-200-7615

7

공수처 출범에 맞춰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부패행위이다.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고위공직자 가족이 범한 부패행위, 퇴직·전역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범한 부패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된 사항이 공수처 수사대상인 부패행위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직접 고발하는 등 범죄혐의의 내용, 증거자료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신고를 활성화해 공직사회 부패를 엄단하고, 청렴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i 자세히 알아보기

심사기획과 044-200-7694

꿀을 찾은 벌과

꿀에 빠진 개미

2020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기 부문 대상



나는 대한민국의 취업 준비생이다. 7월의 시작,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채용공고에 오늘도 어김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원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직업 윤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청렴의 인물 다산 정약용에게 빙의라도 된 듯 막힘없이 자기소개서를 써내려 갔다.

“저는 공직자로서 ‘청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에서 총무부 팀장으로서 정직한 회비 관리에……. 정직하고 깨끗한 공직자가 되고, A 기업을 대표하는 청렴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부름이 들렸다.

“딸, 내일 중국에서 단체로 농장 체험 오기로 했어. 엄마 좀 도와줄래?”

급하게 작성하던 글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노트북을 정리했다. 다음 날이 되었고, 고요했던 농장은 여행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관광객들은 어머니를 따라 수확 체험을 하기 위해 농장 안으로 향했고, 그동안 나는 어머니를 도와 판매할 제품을 진열하고 있었다. 그때,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가이드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제가 이거 팔아 주는 대신, 가격 두 배로 올려서 반반씩 나눠 가지실래요?”

그 순간 난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다. 그 달콤한 유혹에 잠깐이지만 강하게 동요하고 말았다. 끝내 옳지 못한 행동이란 양심의 가책에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아… 제가 여기 사장이 아니라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 중국 부자들이라 돈 많아요. 손해 보는 거 아니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이드는 나에게 시덥지 않은 농담을 던지며 다시 일을 하러 농장 안으로 사라졌다. 아마 그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농장 주인의 딸이고,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제안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찝찝한 기분에 사로잡혔지만, 이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가이드의 은밀한 제안은 시간이 흐르자 금방 잊혔고, 나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복되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른 뒤, A 기업으로부터 면접 제의를 받게 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섰고, 세 명의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청렴’을 실천하며 다리에 붙은 꿀을 씻어낼 것이다. 언젠가 ‘청렴’의 날개를 달고 개미가 아닌 벌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꿀을 찾은 벌의 끝은 찬란하며, 꿀에 빠진 개미의 끝은 비참하다.

면접관들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나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지원자는 청렴이 가장 중요한 직업 윤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불합리한 상황을 보고 대처한 경험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받은 나는 얼마 전 가이드의 은밀한 제안이 떠올랐고, 그때의 경험에 대해 답변했다.

“저는 농장 체험 안내에서 가이드로부터 받은 부당한 제안을 거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가이드는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 물품의 가격을 두 배 부풀려 받자는 제안을 했고, 이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 판단해 거절했습니다. 또한, 저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기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관광객들이 농장에서 좋은 추억을 쌓으면 그 추억으로 형성된 긍정적인 이미지가 중국 관광객의 지속적인 방문과 한국 관광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답변을 들은 면접관은 고개를 가우뚱했다. “가이드라는 직업이 그런 부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자가 가이드의 밥줄을 끊은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 나는 또다시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의 용기 있고 정직한 행동이 마치 잘못이라도 된 듯 반박하는 면접관에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또한,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에 쓴웃음밖에 나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면접관뿐만이 아니었다. 심지어 30년간 교직에 몸을 담으신 동네 아저씨도 “그거 얼마나 한 다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라는 농담을 던지셨다. 많은 사람의 이 같은 반응에 난 멧쩍은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참을 고뇌에 빠졌다.

‘이것이 과연 청렴한 세상인가? 나의 판단과 행동이 바보 같은 짓인 건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의 횡령이 존재하는가?’ 한참을 나의 행동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정의로운 척하는 겁쟁이’로 결론을 내려버렸다. 그래야만 나의 마음이 진정되는 기분이었다. 다음해, 작년에 왔던 가이드가 비슷한 시기에 관광객을 이끌고 다시 방문했다. 그리고 또다시 은밀한 제안을 해왔다. 잠깐 고민에 빠졌지만 결국 나는 가이드의 제안을

승낙했다. 나는 더 이상 ‘정의로운 척하는 겁쟁이’로 남고 싶지 않았다. 가이드의 도움으로 상품은 불티나게 팔렸고, 초반에는 두둑해지는 돈주머니를 보고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상품이 줄어가는 속도만큼 나의 양심의 가책은 커져만 갔다. 나는 차마 웃으며 돌아가는 관광객의 뒷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이런 나의 후회와 양심의 가책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마다 점점 커져만 갔다.

나에게 7월은 농장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취업의 계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많은 자기소개서 항목 중 ‘직업 윤리’에 대한 질문은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이를 작성할 때 마다 스스로가 청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고, 면접관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가면이었을 뿐이었다. 커져만가던 양심의 가책과는 달리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농장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기만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 가이드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고, 결국 우리 농장과 여행사의 관계도 끊이 나고 말았다. 내 모습은 마치 눈앞의 꿀을 보고 달려든 개미 같았다. 꿀은 달콤했지만, 달콤함에 취하는 순간 이미 다리는 꿀의 끈적끈적함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당장의 8만 원을 더 벌자고 20만 원을 놓쳐버린 셈이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작년의 나는 꿀을 찾은 벌이었고, 지금의 나는 꿀에 빠진 개미이다. 여태 스스로 꿀을 찾은 벌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꿀에 빠진 개미의 허상인 셈이다. 결국 현실은 비참한 최후만 있을 뿐이다. 또한, 나는 옥죄어 오는 꿀의 끈적임에 평생을 꿀단지 안에 갇혀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이다. 앞으로 나는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나의 어리석은 행동이 생각날 것이고, 평생을 뉘우치며 살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청렴’을 실천하며 다리에 붙은 꿀을 씻어낼 것이다. 언젠가 ‘청렴’의 날개를 달고 개미가 아닌 벌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꿀을 찾은 벌의 끝은 찬란하며, 꿀에 빠진 개미의 끝은 비참하다.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국민생각함 활용 지침 개선 사례

아동급식카드 이용 관련 불편 해소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건전한 토론과 협업을 통해 더 좋은 정책으로 구현해나가는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www.idea.epeople.go.kr)이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현된 아동급식카드 이용 관련 지침 개선 사례를 살펴본다.

배경과 문제점

결식 우려 아동에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상품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되어 있고, 관련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 물품 구입 시도를 하다 거절당한 청소년에게 낙인감을 줄 우려가 있다.

불편사례

1. A구와 B구는 치킨상품 결제가 되는데 C구는 아동급식카드로 치킨상품 결제가 안 됨. 어떤 지자체에서는 치킨상품이 결제가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됨. (2019년 7월 국민신문고)
2. 현재 구 별로 아동급식카드 결제 가능 소분류가 달라 구매 과정에서 아동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이 부분 때문에 구매를 못하고 아동들이 퇴점하면 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2020년 3월 국민신문고)
3. 편의점에 가면 학생들이 결제하려다 결제가 안 되어서 결국 그대로 놓고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봄. (2020년 5월 국민생각함)

관련 설문조사

2020년 5월 ~ 6월, 198명 참여

이 문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이 일반음식점에서 5천원으로 사먹기 충분한가?

79.9% 충분하지 않다

아동급식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할 때 살 수 없는 품목들이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

81.0% 모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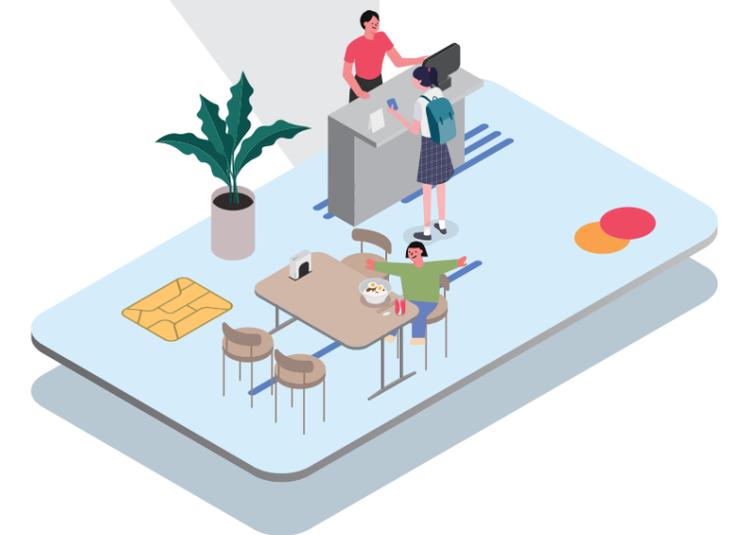
아동급식카드를 운영함에 있어 ‘어느 음식이든 사용가능’, ‘어느 가게든 사용가능’, ‘충분한 금액 보장’, ‘아동급식카드 임이 드러나지 않는 디자인’ 등이 중요하다고 답함

제도의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가맹점과 협의할 때 활용할 수 있고, 아동급식카드 이용자가 어느 것이 구입 가능한지 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으며 이에 아동급식카드로 구입이 불가능한 물품들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매뉴얼을 전환했다.

현재	개정
<p>구입가능 품목 :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p> <p>구입제한 품목 : 커피, 과자, 사탕, 주류 등 기호식품, 생활용품</p>	<p>구입제한 품목만을 명시</p>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독자의 소리

지난 2020년 <겨울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이연화(대구광역시 중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기분야의 '두 어르신인 사과'를 뜻깊게 읽었습니다.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오랫동안 행해져 온 일을 근절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을 아니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일하기에 용기를 내신 기관사 분의 행동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청렴해 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종진(충남 아산시)

정부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41년 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냈던 한센인분들을 위해, 권익위가 나서서 주거복지와 환경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이끌어 낸 이야기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앞으로 한센인촌이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예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크고 작은 민원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준 <권익살롱>의 고충민원해결 사례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확~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권익위의 모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우도형(서울특별시 강남구)

<한 곳에서 한번에 정부합동민원센터>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행정절차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보니 여러 부처를 찾아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복합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해주는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생겨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서진(강원도 원주시)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기사에서 다루어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이 드디어 합의 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택배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실제 정책으로까지 이어진 이 사례는 국민의 생각이 정책으로 반영되었다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종사자들에게 매우 고마운 소식이었습니다.

QUIZ.

'공직자의 000000'은 최근 LH에서 발생했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입니다.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학교장 및 교직원이 포함됩니다.

지난호 정답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답자	김현진(경기도 용인시) 이호진(서울특별시 중랑구) 김기학(경기도 평택시)	양승주(전북 전주시) 강주찬(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권익>을 읽고 소감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두 열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국민권익 열독왕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권익위가 바꿨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바꿨습니다!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이 추천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응답합니다.

국민참여 제도개선, 지금 함께 하세요!

